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 교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답안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언어 어휘·문법 문항 까다로워 수리 기본개념 이해 문제 많아 외국어 빈칸 추론 유형이 어려워

■ 입시 전문가들이 분석한 영역별 난이도

주요 입시 전문가들은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언어영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간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진단, 평가가 엇갈렸다.

수리·외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언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EBS는 난이도 분석 결과 이번 언어 영역은 작년 수능 및 올해 6월·9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어려운 정도였다고 진단했다.

유웨이중앙교육은 “이번 수능의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약간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 학원은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다. 고난도 문제는 대체로 비문학(읽기)에서 출제됐는데 특히 과학, 기술, 언어 제재에서 나온 문항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김형진 상임고교장과 진학실장은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영역 1등급컷이 95점이었으나 올해는 94점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어휘·어법 문항, 과학과

관련된 지문 등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난이도는 지난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해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권 학생에게는 평이했고, 중위권 수험생의 경우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리=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 이상으로 대폭 높아져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비교적 익숙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연계 문항에도 고난도 문제가 포함돼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리 ‘가’형의 경우 9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쉽고,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박연종 송원고 진학부장은 “매년 어렵게 출제됐던 벡터, 공간 도형 문항이 올해 다소 쉽게 출제된 것 같다”며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높았으며, 기본 개념 원리를 꿰뚫고 있는 수험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나”형의 경우 작년 수능,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많이 제시됐다”며 “그러나 개념·원리를 이해한 중·상위권 수험생과 하위권간 뚜렷한 변별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어(영어)= 대다수 학원과 입시업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메가스터디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올해 8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듣기와 말하기는 작년과 출제 유형이 유사해 비교적 쉬웠고, 어법 문제도 평이한 개념을 묻는 것이어서 체감 난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메가스터디는 진단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새 유형의 문제는 없었지만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이 작년 수능보다 하나 많은 6개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EBS 연계율이 높아져 EBS 교재를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투스 철수와 유웨이 중앙 역시 외국어 영역 난이도가 작년 수능과 비슷하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쉬웠다고 분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EBS 교재 개념·원리 이해해야”

안태인 출제위원장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안태인 서울대 교수는 18일 “변별력이 조금 상실되더라도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확실히 지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능출제 기본경향 브리핑에서 “EBS 교재 연계율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70% 이상의 연계율을 나타내도록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수리 ‘가’형이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돼 본 수능에서는 조금 쉽게 전년도 수준으로 출제했다.

-EBS 교재 연계율은

▲지난 6월·9월 모의평가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5개 영역에서 EBS와 연계해 출제했다. 다만 연계율만 6월 50%, 9월 60% 수준이었다. 본 수능에서는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높였고 연계 영역도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EBS 교재와 연계한다고 해도 동일한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매우 비슷하지만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EBS 연계율에 대한 체감 정도가 상위권 학생이 높고 중하위



권이 낮다.

▲우리도 상당히 열려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별력이 조금 상실되더라도 연계율을 확실히 지켜도록 노력했다. EBS와 연계해 출제된 문항 중에서도 다소 변별력 높게 개발된 것이 있다.

-EBS 연계 문항 이외에 나머지 30%가 변별력 있는 문항 아닌가.

▲EBS 교재와 연계하지 않은 나머지 30%에 고난도 문항이 몰리지 않을까 우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EBS 교재와 연계한 70%와 나머지 30%에서 쉬운 문항과 중간 난이도 문항, 고난도 문항을 골고루 배치했다.

-EBS 교재 외에 동영상 강의도 출제에 활용했다는데.

▲출제위원들이 영역과 과목 특성에 따라 극히 일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강의까지 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BS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하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는데 동영상 강의를 부분적으로 참고한 것이다.

/연환뉴스

을 확실하게 지켜도록 노력했다. EBS와 연계해 출제된 문항 중에서도 다소 변별력 높게 개발된 것이 있다.

-EBS 연계 문항 이외에 나머지 30%가 변별력 있는 문항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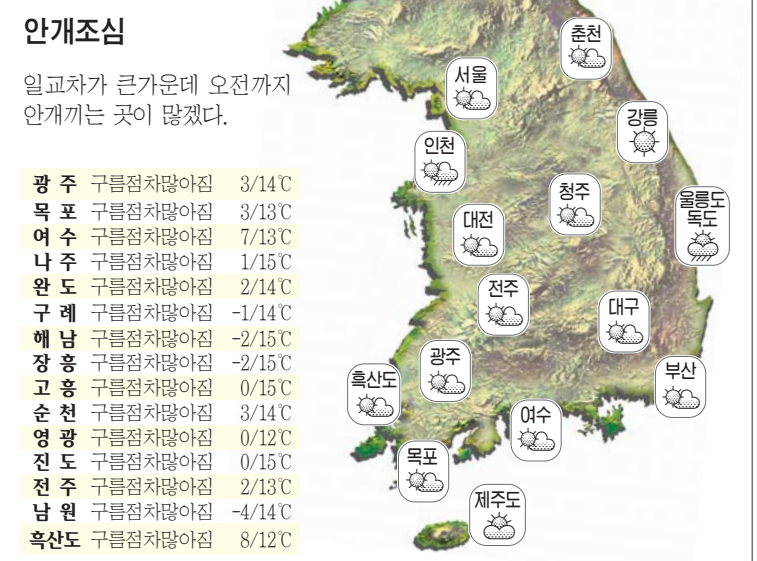
▲EBS 교재와 연계하지 않은 나머지 30%에 고난도 문항이 몰리지 않을까 우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EBS 교재와 연계한 70%와 나머지 30%에서 쉬운 문항과 중간 난이도 문항, 고난도 문항을 골고루 배치했다.

-EBS 교재 외에 동영상 강의도 출제에 활용했다는데.

▲출제위원들이 영역과 과목 특성에 따라 극히 일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강의까지 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BS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하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는데 동영상 강의를 부분적으로 참고한 것이다.

/연환뉴스

오늘 날씨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12.42	12.42	05:2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18:07	18:07	13:3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07:28	07:28	01:0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19:33	19:33	13:34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한자SK카드

최저 4% 50% 할인 / 명차 연간 12회 무료 / 주유, 마트, 카페 22만 할인 / 학원, 병원 1만만 할인

성적 12월 8일 통지... 표준점수·백분위·등급 표시 이번엔 '정보전쟁'

점수 유·불리 따져봐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 세 가지 점수가 구분돼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표시된 성적표는 다음 달 8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문제는 각기 다른 세 유형의 성적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수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세 가지 점수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응시생 집단이 다르고, 과목별 특성도 다르

기 때문에 발생하는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난도가 높은 과목을 본 학생과 쉬운 과목을 본 학생이 받는 점수의 차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바로잡아주면 대학은 최상위권 학생 간의 작은 점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 표준점수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백분위는 특정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비율(0~100)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표준점수 70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보다 낮은 응시자가 전체의 75%라면 백분위는 75가 된다는 뜻이다.

백분위는 계산하기 쉽고 학생들의 성적 수준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0~100% 점수 단위로 표시해야 해 동점자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등급은 1~9등급으로 표시된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이고 2등급은 그다음부터 상위 11%까지, 3등급은 또 그다음부터 상위 23%까지며 마지막 9등급은 하위 4%에 해당된다. 등급 역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9단계로 단순화시켜 지원자들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역시 대학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번엔 '정보전쟁' 주말부터 입학설명회

18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이번 주말부터 대입 진문학과와 각 대학의 입학설명회가 잇따라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정보전쟁'이 시작된다.

각 기관은 저마다 입학설명회에서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시 및 수시 2차 지원 전략을 설명하고 자체 제작한 배치표와 지원 가이드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에서 네 차례에 걸쳐 입학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교협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정시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하며, 전국 90개 대학 입학처 관계자가 참가한다. /연환뉴스

“2011년 1월” 무안공항 출발 전세계기 취향

컨티넨탈 항공 / B737-800 / 152석(비즈니스 13석)

태국 치앙마이

골든 트라이앵글 3개국의 중심 순수한 자연의 세계

출발일 2011년1월 5일, 9일, 13일, 17일, 21일, 25일

- ★ 골든 트라이앵글 3개국 (태국/미얀마/라오스)관광
- ★ 치앙마이 관광&골프 72홀
- ★ 치앙마이 골프 99홀
- ★ 고품격 3개국 관광&골프 72홀
- ★ 전 상품 NO-TIP

광

다이나믹한 해양스포츠의 천국 골퍼들의 낙원

출발일 2011년1월 6일, 10일, 14일, 18일, 22일, 26일

- ★ 광 관광 & 휴양 4일
- ★ 광 PIC GOLD 4일
- ★ 광 레오팔레스골프 4일
- ★ 고품격 골프 4일
- ★ 온워드골프 4일

LOTTE JB Travel & Life

광주 롯데마트

- 첨단점 062.973.9114
- 상무점 062.376.1455
- 월드컵점 062.676.0085
- 광주수완점 062.953.5151
- 롯데백화점 062.223.5588
- 전남
- 여수점 061.643.6077
- 여천점 061.684.1117
- 전북
- 롯데마트 063.282.2626
- 군산점 063.465.8200
- 롯데백화점 063.289.2980
- 전주점

이험찬

Continental Airlines 컨티넨탈 항공

Guam Visitors Bureau 광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태국관광청

WOOLLA 우림